

NEW PRODUCT · NEW TECHNOLOGY

첨단과학의 결실, 우리생활 이렇게 달라진다

신생아의 소리를 듣는다

펼리는 '픽업' 문

다리를 얹은 옷걸이

를 손바닥 속에

편리한 원반

작은 통제관

공중기상을 보는 눈

능 카메라

최초의 매킨토시 모조품

메시지 전달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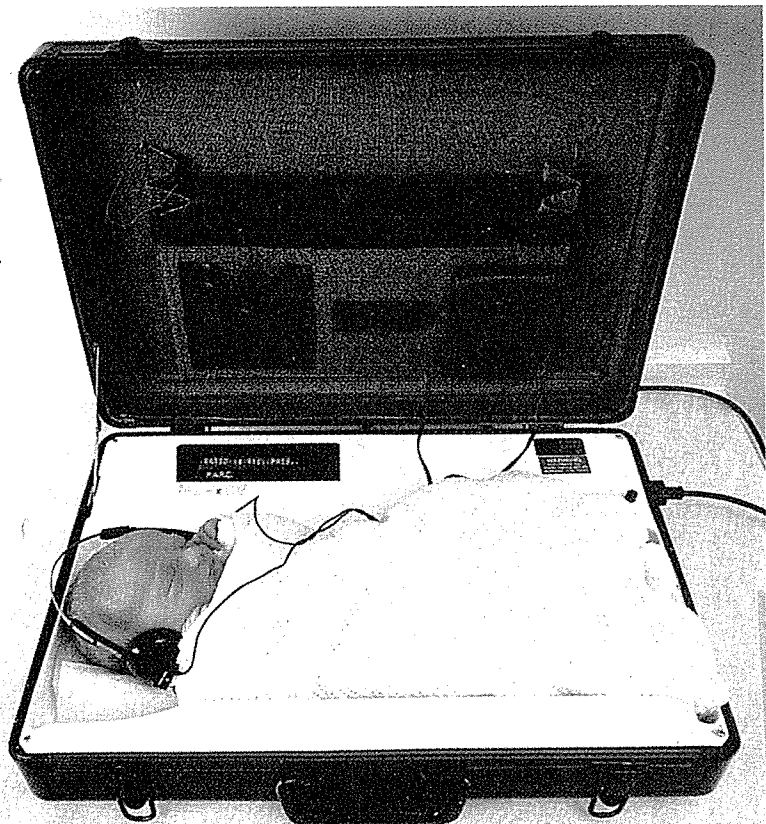
싼 풍력터빈

개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함정

근한 끈돌라

새제품 · 새기술은
첨단과학과 일상생활에서의
부단한 연구결과의 소산이다.
본 난은 최근에 개발 보급되고 있는
새제품 · 새기술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게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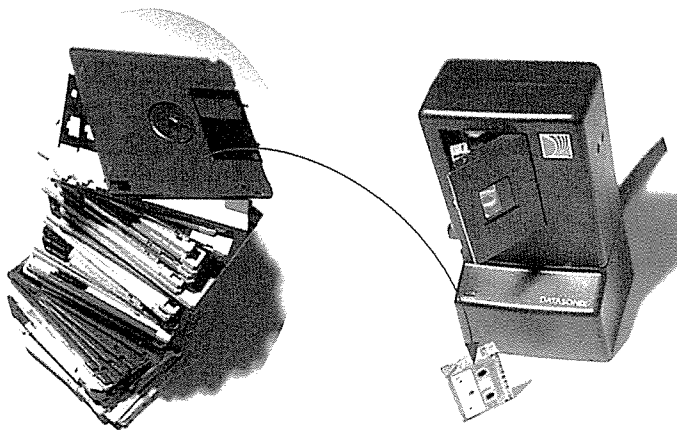
신생아의 소리를 듣는다

뚜껑을 닫으면 이 휴대용 장치는 서류가방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부에는 신생아의 듣는 능력을 시험하는 '청각반응용 요람'이 있다.
영국의 힐링턴병원과 브루넬대학의 연구팀이 설계한 이 요람의 매트리스는
이어폰을 통해 보낸 소리에 대해 신생아가 육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포착한다.



일찍 열리는 '픽업' 문

시보레와 GMC의 신형 '접근용 패널'은 확장된 차체의 측면 전체를 열어제칠 수 있어 의자 뒤 공간으로 짐을 싣고 내리는데 매우 편리하다. 뒤쪽에 돌쩌귀로 연결된 이 패널(법적인 이유로 이것을 문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GM당국은 말하고 있다)은 의자 뒤에 휠체어를 실을 수도 있다. 이 패널은 시보레와 GM C/K 그리고 시에라 확장모델 외에도 S-시리즈와 소노마 콤팩트 차체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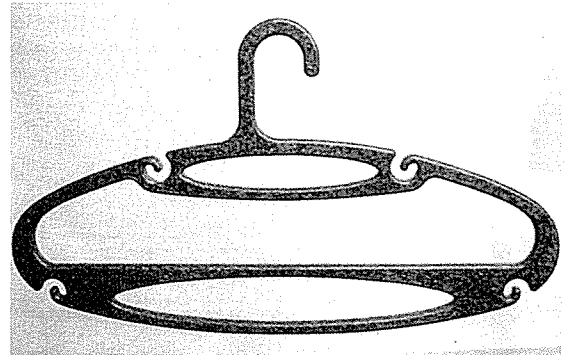
데이터를 손바닥 속에

전기면도기보다 약간 큰 10은스(283.5g)무게의 '페레로스'는 우표키기 밖에 안되는 마이크로카드 한장에 1기가바이트(플로피디스크 888장분)의 정보를 다져 넣는다. 값은 5백99달러. 제작사 : Datasonix, 5700 Flatiron Pkwy., Boulder CO 80301, U.S.A.



작은 통제관

소니사의 조합식 무선 마우스와 오디오-비디오 시스템 컨트롤러인 'PC 비전터치'를 가지면 손바닥 속에서 일련의 전자장치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무선주파를 비전터치 수신장치로 보내면 컴퓨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이 정보를 처리하여 전자부품에게 명령을 보낸다. 값은 아직 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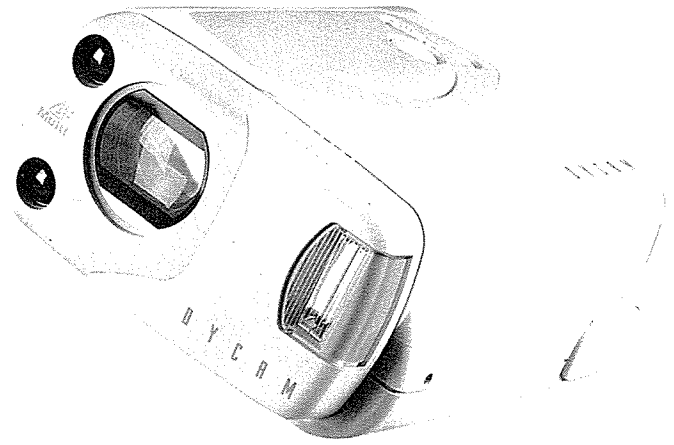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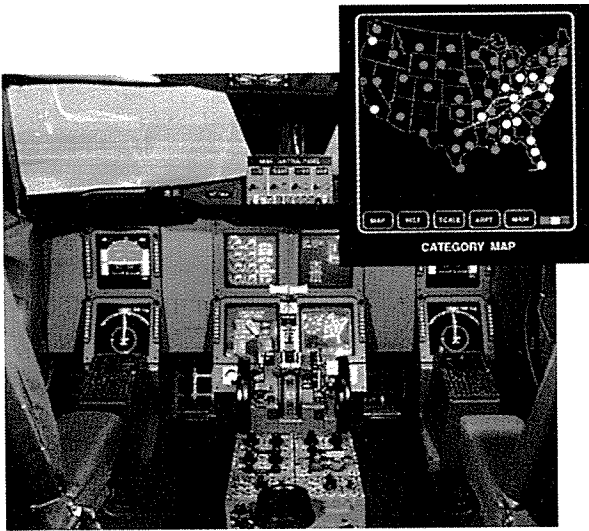
다리를 닮은 옷걸이

무거운 옷들로 축 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새로운 옷걸이는 2개의 타원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마치 적교(吊橋)처럼 작용한다. 미국 시카고의 디자이너인 마이클 프린스가 착상한 이 옷걸이는 미네소타주 센트피터 소재 피닉스 바이오클로짓트사가 개발한, 콩과 재생신문지로 만든 재료인 '엔비론'으로 만들었다.



편리한 원반

'에어로브'사의 '슈퍼디스크'는 누구든지 프리스비(서로 던지고 받으며 노는 직경 20cm 안팎의 플라스틱 원반)던지기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발명자인 기계전문가 애런 애들러는 말하고 있다. 종래의 프리스비는 볼록한 테를 갖고 있으나 애들러는 20년간에 걸쳐 오목한 테를 가진 프리스비를 완성했다. 이것은 원반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틀거리고 비스듬히 날아가려는 경향을 줄인다. 값은 10달러.



고성능 카메라

DYCAM의 10-C 컬러 디지털 카메라는 최초의 소비자용 디지털 카메라이다. 이 카메라의 특징은 파워 줌렌즈(3X), 18인치 거리의 자동초점 그리고 탈착할 수 있는 저장용 카드를 들 수 있다. 9백95달러의 이 카메라는 1메가바이트의 내장량을 갖고 있어 5장의 고선명(640x480)사진이나 또는 40장의 낮은 선명도를 가진 영상을 수용할 수 있다.

공중기상을 보는 눈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개발중인 비행기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매끄러운 비행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먼저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 시스템은 지상관측소로부터의 레이더의 반사, 낙뢰보고 그리고 그밖의 기상자료를 받아 컬러표지의 지도 위에 이런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비행사는 한눈에 기상추세를 볼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메시지 전달장치

모토로라사가 개발한 소형 음성무선호출기는 플레이, 다시감기, 저장, 삭제 등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장치는 4분간의 소리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다. 무제한의 추가 메시지는 가상의 메모리뱅크로 들어간다. 1996년 초 월간 약 20달러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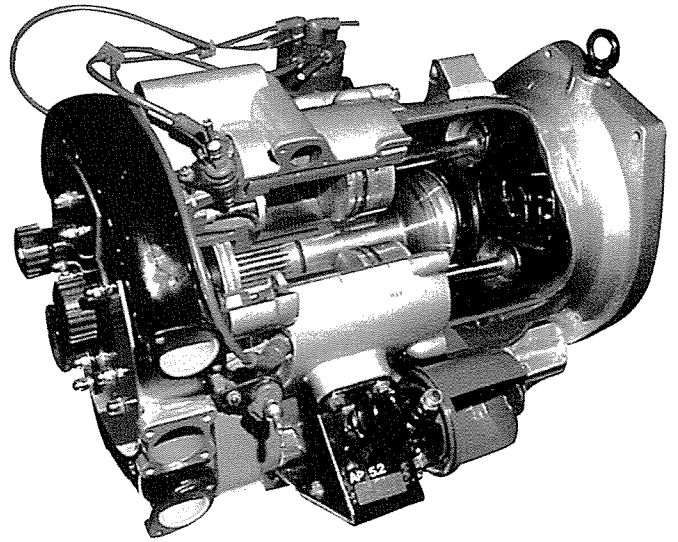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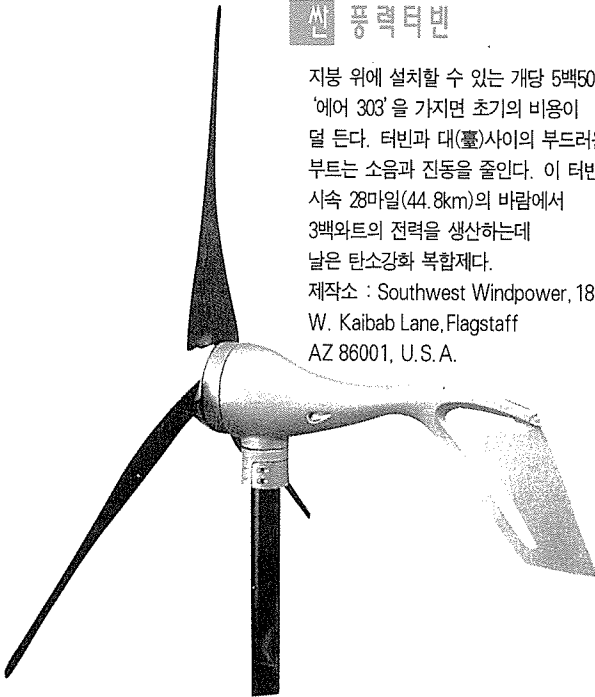
쥘조사의 매킨토시 모조품

파이오니아사의 '멀티미디어 퍼스널 컴퓨터'는 일본에서 팔리고 있는 최초의 매킨토시 모조품이다. 이 모델은 애플사의 맥 OS운용시스템, 내장식 스피커, 4.4배속도의 씨디롬 드라이브 그리고 VCR, 비디오 카메라 또는 컴퓨터제어의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로부터의 영상을 조작하기 위한 비디오 카드 등 여러 특징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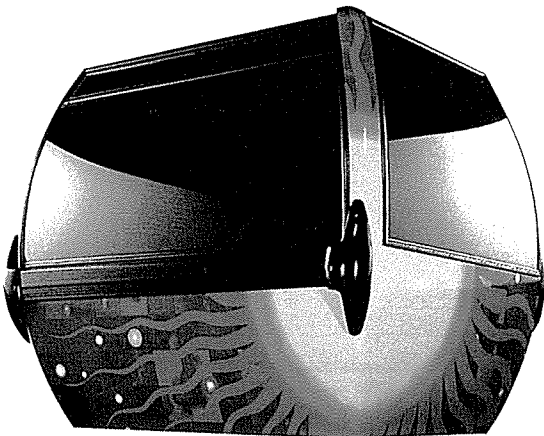
신 풍력터빈

지붕 위에 설치할 수 있는 개당 5백50달러의 '에어 303'을 가지면 초기의 비용이 덜 든다. 터빈과 대(臺)사이의 부드러운 부트는 소음과 진동을 줄인다. 이 터빈은 시속 28마일(44.8km)의 바람에서 3백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낮은 탄소강화 복합제다.
 제작소 : Southwest Windpower, 1855 W. Kaibab Lane, Flagstaff AZ 86001, U.S.A.



방사형 개념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 중앙자동엔진과학연구소는 자동차와 항공기용으로 알맞은, 연료효율이 좋고 다양한 배기량의 피스톤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이 피스톤은 방사형으로 배치되었고 회전경사판은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전환시킨다. 이 엔진의 현형은 5천rpm(분당 회전회수)에서 1백20마력을 산출했다. 그 외형은 미국 승용차의 에어컨디셔닝 콤프레셔와 닮았다.



포근한 곤돌라

겨울철 미국 버몬트주 킬링턴에서는 스키장에서 몸을 데우려고 오두막집으로 뛰어 들어갈 필요가 없다. 데운 방을 가진 최초의 곤돌라-리프트 시스템인 '스카이웍'에 경충 뛰어 오르면 된다. 8명의 승객이 타는 캐빈마다 내부에 석유히터를 갖고 있어 화씨 50도(섭씨 10도)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리프트는 12.5분 이내에 3,800피트(1,266.6m)높이의 스키장 정상까지 약 4km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함정

3천톤급의 라파예트형 프리깃함은 세계에서 가장 은밀한 전함중의 하나다. 좌우의 뱃전은 기울어져 있고 보도는 전혀 없으며 계류용 케이블은 문 뒤에 가려져 있다. 회전포탑은 F-117 스텔스 전투기처럼 표면적이 작다. 레이더 방어용 스크린이 이 함선의 구명보트를 덮고 있다. 프랑스 해군용으로 현재 6척의 라파예트급 함정이 건조중이다.